삼독 벗어나는 것이 '해탈'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㊹ 마음 · 부처 · 중생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눈앞에서 쓰고 있는 것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으니라.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밖으로 향해 찾아 헤맨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밖에서 구할 법이 없고 안에서도 얻을 법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산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는 것이, 찾는 마음 쉬어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미 일어난 것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10년 행각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산승의 견처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느니라. 다만 평소 하는 대로 옷 입고 밥 먹으며 일없이 보내면 되느니라. 제방에서 온 그대들이 모두 뜻하는 마음이 있어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며, 해탈을 구하고 삼계(三界)를 벗어나기를 구하나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는가? 부처니 조사니 하는 말은 자신을 묶어두고 좋아하는 말일 뿐이니라. 그대들이 삼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자리(心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욕계(欲界)이고, 그대들이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色界)이며, 그대들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無色界)이니라. 이 삼계는 그대들 집안의 가재도구니라.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다' 말하지 않느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의 눈앞에 뚜렷하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짐작해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니라."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사나 부처의 마음과 추호도 다름이 없다. 이 점을 임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말은 이미 선가(禪家)의 상용어(常用語)가 되다시피 하였고 〈화엄경〉 경문에도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법은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이므로 밖으로도 찾을 것이 없고, 안으로도 찾을 것이 없다. 마음을 쉬어 가만히 있는 것이 10년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마음이 가는 길을 멈추라는 말이다. 언뜻 평소 생활 그대로가 공부라는 말로 들린다. 밥 먹고 옷 입고 활동하는 일상사를 떠나 별도로 하는 수행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모두가 임제의 종지인 돈오돈수(頓悟頓修)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를 깨달은 분상에서는 똑같은 말이 빈번하게 나온다. 영가 진각(永嘉 眞覺, 647~713)의 〈증도가(證道歌)〉 첫 구절이 "그대 보지 못했는가? 배움을 끊어 할 일 없는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참된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네.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이며 허깨비 같은 헛된 몸이 곧 법신이라네.(君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라고 하였다.

〈신심명〉을 쓴 승찬(?~606)이 출가 전 젊은 시절 풍질(風疾-문둥병)에 결려 여러 지역을 방랑하다가 혜가를 만났다. 이때 서로 문답한 대화의 장면이 〈전등록〉에 나온다. 먼저 승찬이 여쭈었다.

"제가 몹쓸 풍질에 걸렸습니다. 청하오니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찾아온다면 참회시켜 주겠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미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버렸네. 마땅히 불법승(佛法僧)에 의지해 살아가게나."

"지금 스님을 뵙고 이미 승보(僧寶)는 알았습니다만, 무엇을 불보(佛寶)라 하고 법보(法寶)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불보이고 이 마음이 곧 법보이네. 법과 불이 둘이 아니며, 승보도 또한 그러하다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닙니다."

삼보가 마음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임제는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는가?"라고 묻고 삼계가 다름 아닌 탐, 진, 치 삼독(三毒)이라고 이색적으로 말했다.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解脫)이라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망연을 끊어내면 곧 '성불'

〈妄緣〉



세상 속 경전읽기

㊹ 체로금풍(體露金風)

가로의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바로 옆의 은행나뭇잎은 아직도 파랗다. 5m도 안 될 지척거리라 환경조건이 거의 같을 텐데도, 일찍 물길을 닫은 부지런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계속 물길을 열어놓은 게으른 나무도 있다.

집 뜰의 은행나무는 한껏 게으름을 부리다가 늦게야 황금빛으로 변했다. 간밤에 영하로 내려가고, 무서리 내린 아침에 보니 은행나무는 하늬바람에 잎을 모두 떨구어 앙상해지고, 밑동 주위에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있다. 풍성한 여름을 만끽하며 풍경이 울 때마다 부채춤을 추어대던 그였다. 이제 화려하지만 군더더기 속박이었던 황금빛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알몸인 채로 쨍하게 파란 하늘을 우러르며 사색과 인고(忍苦)의 겨울채비를 한 것이다.

송(宋)의 설두 중현(雪竇 重顯)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에서 참선에 참고가 되는 100개의 고칙(古則)을 선별하여 각각에 게송을 붙인 〈송고백칙(頌古百則)〉이 있다. 이에 송(宋)의 원오 극근(圓悟 克勤)이 수시(垂示) · 착어(著語) · 평창(評唱)을 덧붙인 것을 원오의 제자가 편찬 · 간행한 〈벽암록(碧巖錄)〉의 제27칙은 다음과 같다.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스님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하였다. "가을바람에 (앙상한) 알몸이 드러난다." [僧問雲門°樹凋葉落時如何 雲門云°體露金風]"

〈佛果圓悟禪師碧巖錄 T2003_.48.0167b24-25〉

운문체로금풍(雲門體露金風)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고칙은 〈운문광진선사광록(雲門匡眞禪師廣錄)〉에도 나온다. 여기에서 나뭇잎은 분별망상(分別妄想)을 뜻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별망상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금풍'은 가을바람이고, '체로'는 사물의 참 면모[本體, 眞貌]가 완전히 드러난 것을 뜻해, '체로금풍'은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고 나목(裸木)만이 남듯이, 번뇌 또는 분별망상이 떨어져 순수한 본래의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난다는 비유이다. 이는 곧 백장선사(百丈禪師)가 말한 체로진상[體露眞常, 참되고 항상한 본체의 드러남]이다.

"백장선사가 상당[上堂; 선종의 장로나 주지가 법당의 강단에 올라가 설법함]하여 이르되,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니 육근[六根;여섯 감각기관]과 육진[六塵; 여섯 감각대상]을 멀리 벗어났네 /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니[體露眞常] /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 심성[心性; 마음의 성품]은 (번뇌에) 물들지 않아 / 본래 스스로 원만하니 /다만 망령된 인연[妄緣] 여의면 / 곧 여여(如如)한 부처님이네. [(百丈禪師)上堂(曰):「靈光獨耀, 逈脫根塵。體露眞常, 不拘文字。心性無染, 本自圓成。但離妄緣, 即如如佛°」]"

〈五燈會元 卷第三(X80n1565_003) 百丈章 (0071a09) 중에서〉

이는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인 신령스러운 광명[靈光]이 청정하게 비침을 가리킨 요긴한 법문으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9 고령신찬장(高靈神贊章)에도 실려 있다. 고령사(古靈寺)의 강사인 계현(戒賢)에게 득도(得度)해 경문(經文)을 배우던 신찬(神贊)이 백장 회해선사(百丈懷海禪師)에게 가서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제자의 심상치 않음을 마침내 알아챈 수업사(受業師) 계현이 상당법문을 요청했고, 신찬은 백장의 위 법문내용을 설해 스승을 깨닫게 하여 보은하였다는 일화이다.

범부는 감각기관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어 감각대상을 만나 오염된 채 망령된 인연[妄緣]으로 살아간다. 감각기관을 거두어 안으로 향해, 자성광명(自性光明)을 가린 이러한 망연을 끊어서, 신령스러운 광명이 스스로 빛날 수 있다면 이것이 깨달음이요 성불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㊿ 깨침의 길 5

'깨달음' 논쟁 촉발 '대천오사'

2004년도에 개봉한 〈아라한 장풍대작전〉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손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무림의 고수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라한을 절대내공을 지닌 신비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고 깨침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까지 아라한은 모든 수행자들의 꿈이자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그 위상과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불멸 후 200여 년경 마하데바(Mahādeva), 한역불전에는 대천(大天)이라 불리는 비구가 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는데, 번뇌를 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과 주장을 하였다. 그가 제기한 다섯 가지 주장을 가리켜 '대천오사(大天五事)'라고 한다. 이는 깨달음과 아라한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첫째는 여소유(余所誘)인데, 아라한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뜻이다. 어느 날 마하데바가 몽정을 하였다. 스승의 옷에서 그 흔적을 발견한 제자가 어떻게 모든 번뇌를 끊은 성자가 몽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마하데바의 대답이 바로 "아라한도 꿈속에서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무지(無知)인데, 스스로 깨달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마하데바의 제자가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라한이 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더니,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

셋째는 유예(猶豫)다. 이는 무지와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이 아라한이 된 것을 알기까지 시간적인 유예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깨치는 순간 '아!' 하고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과거 어느 때 자신이 깨쳤다는 것을 알기도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타령입(他令入)이다. 이것도 앞선 무지, 유예와 유사한 경우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무지와 유예, 타령입은 결국 '아라한의 자각'에 대한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섯째는 도인성고기(道因聲故起)다. 성스러운 도(道)는 괴롭다는 소리로부터 생긴다는 뜻이다. 어느 날 마하데바가 무심결에 괴롭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제자가 들었다. 그러자 제자는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끼는지 물었고 스승은 깨친 사람도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라한은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하데바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끼며,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를 소멸하기 위해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5가지 문제제기로 인해 아라한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몽정을 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성자, 자신이 깨쳤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라한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하데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은 성자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몽정을 한다면, 그는 아라한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마하데바의 의견에 찬성하는 수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라한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깨달은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붓다와 같은 완전한 경지(成佛)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라한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파불교에서는 여전히 아라한을 절대시했지만,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은 성불을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대천오사는 깨달음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이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에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붓다처럼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때로 괴로움이 느껴지고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참회, 발원하고 더욱 정진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불자(佛子)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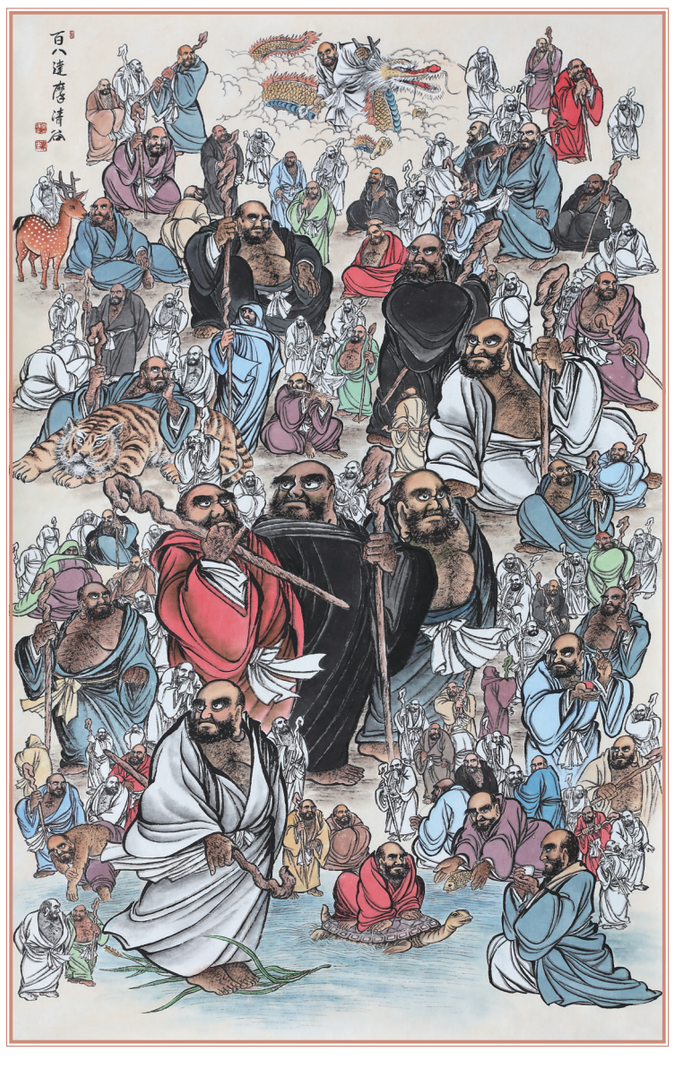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108가지 모습의
"달마" 대사께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번뇌는 원래 10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달마가 108가지의 모습으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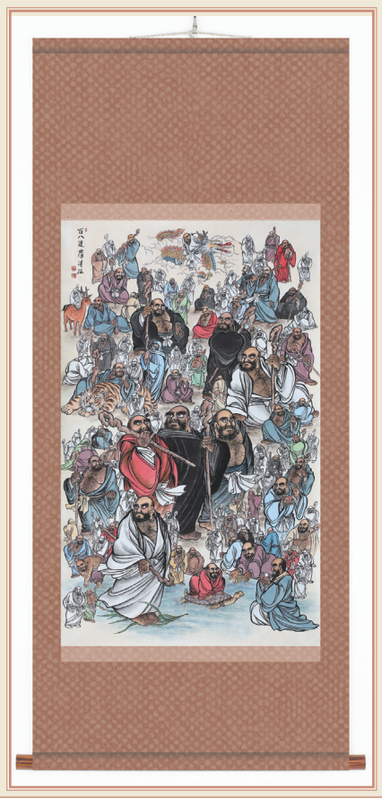
달마는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는 분으로 인도의 불교를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는 분이다. 양나라의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서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였으나 어느날 한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 놓고 뱀 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새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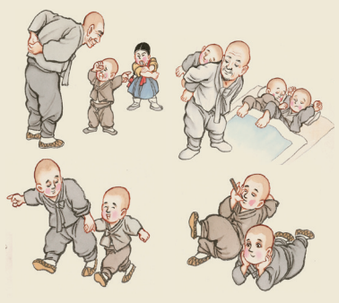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총무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한점마다 수호신이되어 집안을 지켜 줄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 등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할것입니다.



•그림규격 : 75x140Cm •족자규격 : 85x175Cm
•가격 : 300,000원

•그림규격 : 44x75Cm •족자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 2점 동시 구입시 390,000원



▣ 수강생 모집 – 장소 : 인사동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은 마하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도, 풍속화, 산수화, 동자승 등을 지도 합니다.